

청동기시대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검토

이형원(한신대학교박물관)

청동기시대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검토

이형원(한신대학교박물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 |
| II. 취락구조론과 분묘공간 | |
| III.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 |
| 1. 단위 취락 내 분묘공간의 변천 | |
| 2. 시기별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 |

I. 머리말

한국고고학에서 취락이라는 용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분묘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주거의 집합체인 주거군을 뜻하며, 또 다른 하나는 주거군과 분묘군을 포함하여 생산지, 의례공간, 도로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전자가 협의의 취락 개념이라면 후자는 광의의 취락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넓은 의미의 취락 개념을 따르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무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死者 처리 시설이면서 집단의 영역 표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취락 내에서 분묘공간이 주거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로 발굴된 유적이나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이 함께 확인된 유적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청동기시대¹⁾ 전기간을 시야에 넣었고 공간적으로는 남한 전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비교적 거시적 관점에서 분묘공간의 조성에 대해 고찰한다.

1) 본고의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은 4분기안, 즉 미사리식토기 주체-조기, 가락동·혼암리·역삼동식토기 주체-전기, 역삼동·송곡리식토기 주체-중기, 수석리식토기를 주체로 하는 시기를 후기로 나누는 입장을 취한다(李亨源 2011).

II. 취락구조론과 분묘공간

우선, 분묘공간 구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취락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는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보면, ①주거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취락을 비롯하여 ②주거공간과 저장공간, 또는 ③주거공간과 분묘공간으로 구성된 취락, 그리고 ④주거와 저장, 분묘공간이 함께 확인되는 취락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⑤주거, 저장, 분묘공간에 대규모 의례공간이 부가되어 중심취락을 형성하는 취락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초기에는 아직 무덤이 확인된 바 없으며, 전기 전반의 예도 소수에 불과하다. 전기 후반이 되어서야 일부 취락에 분묘공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중기의 송국리유형 시기가 되면 묘역이 활발하게 조성된다(이형원 2009).

한편, 최종규(2004·2005)는 송국리유형 시기의 취락구조를 주거역과 묘역이 동일 지역에 공존하는 '일체형 취락'과 서로 떨어져 있는 '분리형 취락'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일체형은 다시 墓地高位所在型, 墓地低位所在型, 墓地·居住地同位型(주거중심형, 묘지중심형, 묘지·거주지분할형)으로 세분하였다. 이 분류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자 역시 이 견해에 적극 찬동한다. 다만, 일체형과 분리형은 모두 묘역의 존재를 상정한 것으로, 묘역을 갖지 않는 취락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체형의 타당성 여부, 또한 취락의 입지에 따른 구분(구릉지, 평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양한 조합의 취락구성은 생활영역인 주거역과 사후영역인 분묘역으로 이분할 수 있는데, 두 영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먼저 주거지와 무덤의 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별 주거의 거주원 가운데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더 나아가 주거군이나 취락 내에서 분묘조성이 허용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무덤에 묻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개별 세대(주거)나 세대공동체(주거군), 취락공동체(취락)의 분묘조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야 한다. 또한 거주영역에서 볼 수 있는 젠더, 세대, 계층의 양상이 분묘역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도 살펴야만 한다. 더 나아가 단위취락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취락군 수준에서의 양상도 분석해야만 한다. 물론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의 파악도 중요하고,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도 규명해야 하는 등 연구 주제가 너무 많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고학적 맥락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李亨源 2010a).

Ⅲ.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여기에서는 단일 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 내에서 시기에 따라 분묘공간이 어떻게 조성되고 변화해 가는지 김천 송죽리유적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 이어서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시기별 묘역의 존재 양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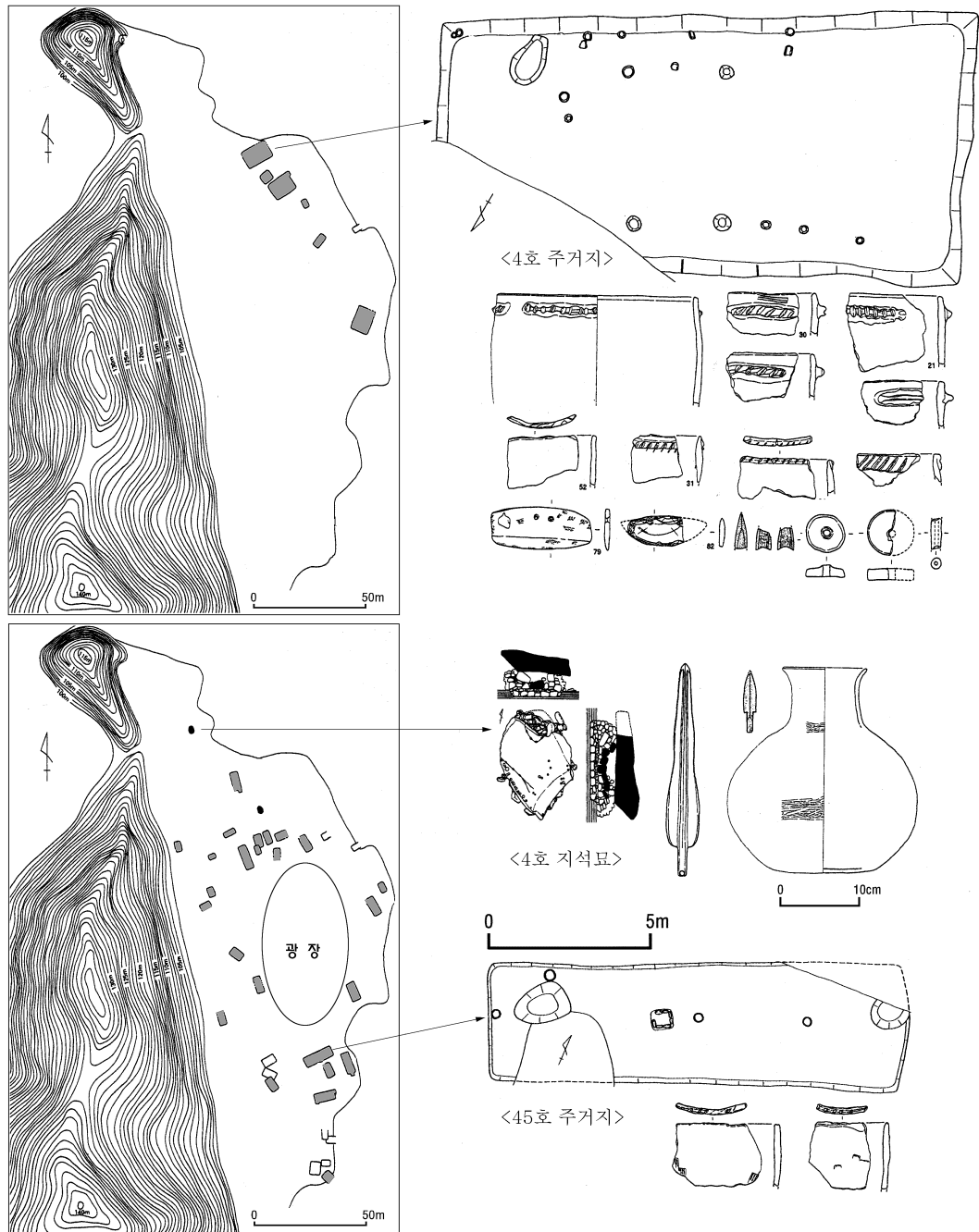
1. 단위 취락 내 분묘공간의 변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유적 가운데 전기에서 중기에 걸치는 기간의 주거역과 묘역의 관계를 비교적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김천 송죽리유적이다(金權九·裴成嫻·金才喆 2007). 보고서에 의하면 송죽리유적은 크게 3단계로 시기가 나뉘는데, 필자 역시 이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거쳐 <도면 1·2>를 작성하였다. 이를 필자의 편년(이형원 2009·2010b·2011)에 대입하면, 1단계는 미사리식주거지와 미사리식토기(돌대각 목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 가락동식토기, 구순각목토기 등으로 볼 때, 전기 전반에 해당한다. 2단계는 둔산식주거지와 구순각목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전기 후반이며, 3단계는 원형주거지와 유구석부 등이 확인되는 중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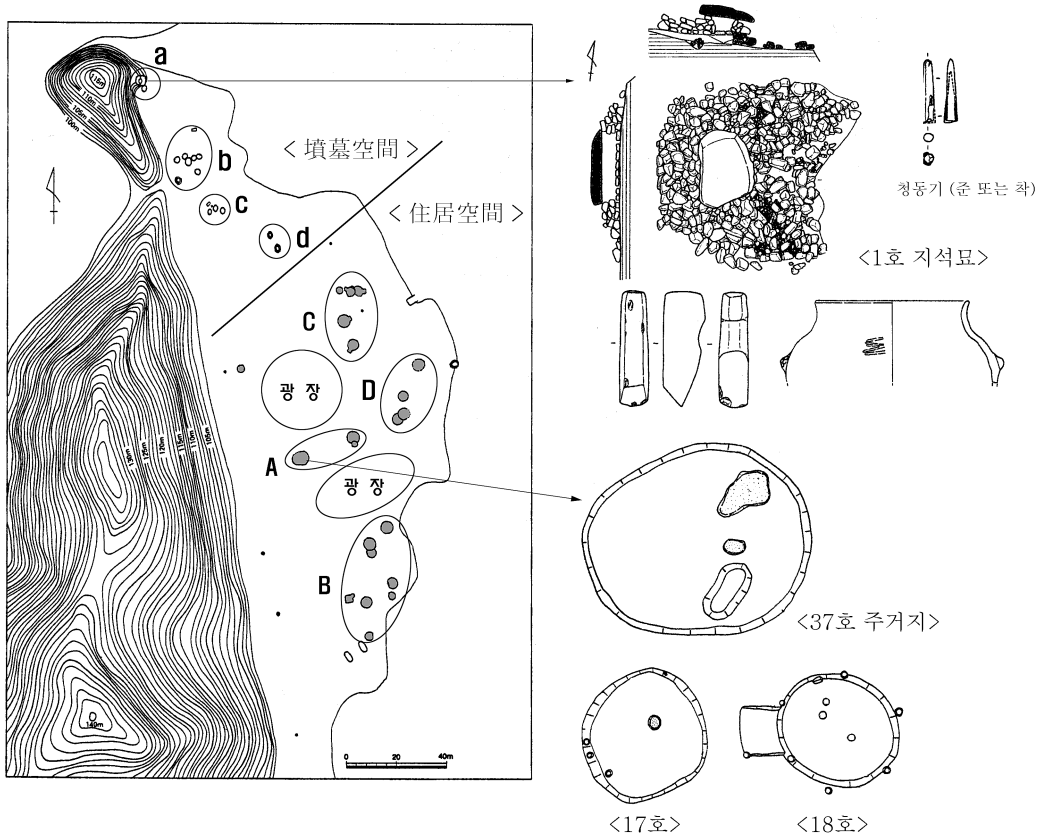
송죽리 1단계인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은 소규모 취락으로 주거지 몇 동만으로 이루어졌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 전반에는 무덤이 잘 확인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도면 1의 상).

송죽리 2단계인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은 취락규모가 확대되었는데, 광장을 중심으로 주거지들이 환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시기의 분묘는 2기 분포하는데, 4호 및 18호 지석묘이며²⁾, 4호 지석묘와 바로 인접한(1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바닥에 꽂힌 채 노출되었는데, 취락을 위한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후반부터 취락 내의 무덤 조성이 가시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4호 지석묘는 주거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편인 45호 주거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지석묘는 취락 지도자의 무덤이면서 동시에 취락을 위한 기념물로도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는 청동검의 의례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무덤은 지도자의 매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 전체를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락의 상징성을 갖는 4호 지석묘가 취락의 최북단에 주거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도면 1의 하).

2) 4호와 18호 지석묘에 부장된 적색마연호와 발형토기는 2단계 주거지 출토품과 같은 형식이다.



<도면 1> 김천 송죽리 전기 전반 취락(상)과 전기후반 취락(하)의 분묘공간



<도면 2> 김천 송죽리 중기 취락의 분묘공간과 주거공간의 대응관계

송죽리취락의 마지막 3단계는 청동기시대 중기로서, 취락 내에 주거지와 분묘가 각각 몇 기씩 군집을 이루면서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도면 2). 전기 후반에 비해, 분묘군의 확대와 주거군별 군집의 명확화가 눈에 띈다. 그리고 주거군과 분묘군의 세트관계가 어느 정도 간취되는 것도 특징인데, <도면 2>에서는 대문자 A, B, C, D의 각 주거군과 소문자 a, b, c, d의 각 분묘군의 대응이 이에 해당한다³⁾. 이 가운데 취락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주거 A군의 37호 주거지는 면적이 23.9㎡로서, 여타 19동의 주거지 면적이 10㎡ 전후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면적 17.5㎡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38호 주거지도 A군에 속해 있는 점에서 볼 때, A 주거군은 취락 내에서 유력 세대공동체로 추정된다. A주거군에 대응하는 a분묘군의 1호 지석묘는 규모가 가장 크며, 여기에서 준 또는 착의 형태를 가진 청동기가 출토된 점에서

3) 이는 각각의 군집이 하나의 세대공동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동기시대 중기에 속할지라도 주거군 중복현상을 포함한 세분된 편년에 의해 共時性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군과 분묘군, 또는 군집 내의 수적 대응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석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38호 주거지와 1호 지식묘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주거군과 a분묘군은 모두 하나의 같은 세대공동체의 거주역과 분묘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A주거군은 취락의 중앙에 입지하면서 양 쪽의 광장을 사이에 두고 다른 주거군과 배치되어 있는 입지적 우월성과 전술한 주거 규모의 탁월성 등에서 거주영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a분묘군 역시 입지, 규모, 부장유물 등에서 전체 분묘군을 압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분묘군의 1호 지식묘는 취락의 최북단에 입지하는 점에서 취락 전체를 상징하는 거석기념물로도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李亨源 2010a).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죽리 3단계취락은 주거역과 묘역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 주거는 20동이며, 무덤은 17기로 이 가운데 군집을 형성하지 않는 26호 주거지와 19호 지식묘를 제외하면, 주거 19동에 무덤 16기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각 군집별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김천 송죽리3단계취락(중기)의 주거와 분묘의 대응관계

주거군 / 주거수	분묘군 / 분묘수	비고
A / 2	a / 2	대형주거와 분묘, 청동기 소유
B / 8	b / 8	주거지 중복 1례
C / 5	c / 4	주거지 중복 1례
D / 4	d / 2	주거지 중복 1례
기타 비군집 1동(26호)	기타 비군집 1기(19호)	
총 4군 20동	총 4군 17기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거 1동에 1명 정도씩⁴⁾ 무덤에 매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주거지 사이에 중복된 사례가 3군데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 17동과 분묘 17기로 정확히 1:1로 대응하게 된다.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개별 세대(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한 명만 무덤에 묻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취락의 공간적 범위에서 주거역과 묘역의 전체가 발굴되었으며, 모든 무덤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주거와 분묘가 서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면서 축조되었겠지만, 취락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었다는 것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는 대체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주거의 거주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무덤에 묻혔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생계경제와 관련하여 집단이 회귀적 이동을 한다면, 하나의 개별 세대는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1동만이 아니라, 2-3동의 주거지를 남겼

4) 수치상으로는 1(주거) : 0.84(무덤)의 비율을 갖는다.

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회귀적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세대를 한 동의 주거에만 국한시키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볼 경우, 세대당 2인 매장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에 무덤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중기단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매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조직이 복잡하고 위계화된 집단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인데, 계층에 따라서 무덤에 묻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주거와 분묘의 상관관계는 분묘가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인데, 뒤에서 다룰 부여 송국리취락이나 보령 관창리취락의 분묘공간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김천 송죽리유적의 중기취락은 주거역과 분묘역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며, 현재로서는 주거군과 분묘군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내면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취락과 비교하면서 여기에 민족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2. 시기별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1) 초기

미사리식토기, 즉 돌대각목문토기가 주체를 이루는 시기의 무덤이 발굴된 예는 아직 없다.

2) 전기

돌대문토기와 더불어 가락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가 성행한 시기로, 전기전반보다 전기후반의 취락에서 분묘공간이 확인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전반의 취락에서 분묘와 주거지가 함께 발굴된 유적으로는 홍천 외삼포리유적이 있다(도면 3). 여기에서는 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그리고 이단병식마제석검⁵⁾, 삼각만입석촉이 공반되는 전기전반의 주거지(3·5호)와 세장방형주거지에서 공렬토기와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되는 전기후반의 주거지(1·2·4호)와 더불어 삼각만입석촉이 1점 부장된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와 무덤에서 나온 석촉을 비교해보면, 석곽묘는 전기전반의 주거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⁶⁾. 이러한 편년안이 타당하다면 홍천 외삼포리 1단계 취락은 주거지 2동(3호 및 5호)과 석곽묘 1기로 구성된 취락구조를 보인다. 분묘와 주거가 근

5) 필자는 초기와 전기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토기와 함께 마제석검의 존재를 중시한다.

6) 홍천 외삼포리유적의 보고자는 석곽묘를 전기후반의 공렬토기 출토 주거지와 연결시키고 있다. 필자 역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치는 분묘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수궁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석촉의 유사성과 5호 주거지의 마제석검을 함께 볼 때, 전기전반으로 귀속시켜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본다.

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천 능강리유적은 주거지 3동과 지석묘 2기로 이루어졌다(도면 5). 3동의 주거지와 1호 지석묘가 같은 지역에 위치하며 2호 지석묘만 1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복수의 위석식노지, 단사선문이 시문된 가락동식토기, 삼각만입석촉 등으로 보아 전기전반에 해당한다⁷⁾. 분묘공간, 즉 1호 지석묘가 주거역과 근접한 동일 공간에 분포하는 양상은 위의 흥천 외삼포리유적과 닮았다. 자료가 너무 적어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외삼포리취락이 흥천강변의 평지에, 능강리취락이 구릉부에 조영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취락구조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시간성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전기후반의 유적에서 분묘공간과 주거공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유적은 대전 신대동(도면 5)을 비롯해서 청원 황탄리, 연기 송원리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신대동과 황탄리취락은 주거역과 묘역이 서로 100여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송원리취락은 몇 개의 능선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전기전반에서 후반에 걸치는 주거지 56동과 중기의 송국리식주거지 2동, 그리고 지석묘 2기가 분포한다(도면 6). 지석묘 2기는 조금씩 이동된 이유에서인지 매장주체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지석묘들이 확인된 1지구의 구릉지역은 주거지가 전혀 분포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분묘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집단을 대표하는 권위자의 무덤이자 취락을 상징하는 영역 표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시기의 생업경제를 이동성이 강한 화전농경으로 볼 경우,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영역을 옮겨다니면서 다시 본거지에 회귀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 타집단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영역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자 기념물이 필요할 것이다. 송원리 취락의 영역 표시를 이 2기의 지석묘가 담당했을 것이다. 지석묘가 자리 잡은 곳은 주변이 잘 조망되며, 또한 주변에서 잘 보이는 장소이고, 구릉 능선에 선상으로 배치된 주거공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분묘공간을 기준으로 삼아 주거공간이 순차적으로 조영되고 폐기되었을 것이며, 지석묘에 매장된 자는 송원리집단을 최초로 이끌었던 지도자와 관련되거나 또는 송원리지역을 주생활 무대로 삼고자 했던 시점의 지도자의 무덤에 해당할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덤이 간헐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분묘공간의 조성이 매우 미약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농경이 논농사 보다는 화전이나 밭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당시 취락 단위의 이동은 매우 빈번했을 것이다. 이는 토지활용

7) 이 유적은 필자의 가락동유형 II기에 해당하는 전기중엽으로 편년되는데, 이 글에서는 남한 전역의 양상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편의상 기존의 중부지역 전기전엽(가락동유형 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과 중엽(가락동 I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기)을 전기전반으로, 전기후엽(가락동유형 II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I기)을 전기후반으로 2분하여 사용한다.

방식과 농경기술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 화전농경의 지력소모로 인한 휴경기간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다. 이는 단위 취락(집단)의 동일지역에 대한 정주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것이 대부분의 전기 취락에 분묘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로 생각된다.

2) 중기

송국리유형의 물질문화가 유행하는 시기, 또는 그와 병행하는 단계가 되면 취락 내에 분묘공간이 활발하게 조영되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중부지역

중부지역의 춘천 천전리유적에서는 주구묘가 전기후반부터 중기의 이른 시기에 걸쳐 묘역을 형성하였으며, 주구묘 이후에는 지석묘군이 그 묘역을 대신하게 된다(도면 4). 평지에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이 근접해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달리 낮은 구릉부에 입지한 안성 만정리 신기취락은 묘역과 주거역이 250여 미터 이격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도면 7).

② 호서지역

호서지역의 분묘공간은 구릉지역에서 확인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서천 오석리유적이나 공주 산의리유적과 같이 구릉 정상부에 조영된 묘역과 여기에서 각각 20여 미터와 7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주거역이 위치한다(도면 8). 두 유적 모두 분묘공간은 환상을 띤다. 오석리유적에 대해서는 동시기성을 배제하더라도 주거지 13동에 비해 무덤의 수가 25기로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오석리집단을 묘지의 관리와 장송의례를 담당하는 墓祀集團으로 해석한 견해(安在皓 2004)도 있지만, 주거 1동에 2사람씩 무덤에 매장된다고 생각하면 무덤과의 대응관계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밝혀진 오석리유적의 범위가 당시 취락의 전모를 보여주는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이 분리된 양상은 계곡부를 사이에 두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 배치된 경우도 있는데, 대전 대정동유적과 서천 이사리·월기리유적이 그러하다.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예로서, 대정동취락이 주거역과 묘역간 이격 거리가 300여 미터이며, 이사리·월기리취락은 600여 미터에 달한다(도면 9).

부여 나복리유적은 약간 다른 양상이다. 200여 미터 거리의 구릉 남쪽과 북쪽 지점 2개소에 분묘공간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2개의 주거군이 서로 50여 미터 정도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이는 나복리취락이 2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락 전체 영역의 가장자리에 묘역을 만들어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보령 관창리유적과 부여 송국리유적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청동기시대의 중심취락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적이다. 두 유적의 분묘공간은 주거공간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은 것이 특징이다. 관창리취락의 195동 주거지에 대응하여 14기로만 구성된 분묘역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정 계층만이 취락의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도면 10). 송국리취락의 분묘공간 역시 관창리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창리와 달리 취락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으나, 동검묘를 비롯하여 모두 7기⁸⁾의 무덤이 확인된 52지구의 분묘군을 상위계층을 위한 매장영역으로 추정하는 데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관창리 분묘공간과의 차이는 최상위의 무덤에 청동기와 장신구류, 석제 무기 등 풍부한 부장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도면 11).

③ 영남지역

소규모 취락은 진주 안간리유적과 같이 구릉 사면에 분묘공간과 주거공간이 혼재하는 예가 있는데, 주거 1동과 무덤 1기, 또는 주거 2동과 무덤 2기씩 세트 관계를 보이면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 같다(도면 12). 양산 소토리유적은 묘역이 구릉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거역이 사면부에 배치된 양상이다(도면 13)⁹⁾. 최종규(2005)는 묘지와 거주지와 조합을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대별하고, 소토리와 같은 경우를 墓地高位所在型으로 보았다. 필자는 이 양자의 관계를 혼재형과 분리형으로 나누어 주거지와 분묘가 특정 공간에 집중하지 않는 것과 분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적용하면 안간리는 혼재형에 소토리는 분리형에 해당한다.

대구 동천동유적과 청도 진라리유적은 비교적 많은 수의 주거지가 발굴된 반면에 무덤의 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도면 14 및 도면 15). 두 취락의 무덤은 주거역의 가장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축조된 점에서 취락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것으로도 보이는 한편, 묘역의 전모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동천동취락은 주거공간과 경작지 사이에 분묘공간이 조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예는 진주 대평리취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호취락으로 지명한 울산 검단리유적은 지석묘2기와 석관묘1기 등 무덤은 3기만 확인되었으며, 보고자는 환호가 폐기된 이후의 검단리3단계로 파악하였다. 다만 환호축조 이전부터 묘역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현재 발굴된 무덤들이 있는 곳을 분묘공간의 동쪽 경계로 이해하고 있다. 구릉 사면의 상부에 주거역이 있고 최하단부에 묘역이 분포하는 양상이다(도면 16). 분묘역으로 예상되는 미발굴 서쪽지역에 어느 정도의 무덤이 더 존재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거지와 무덤의 수적 관계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청

8)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어 전기 무덤으로 판단되는 5호 석관묘는 제외한 수이다.

9) 중복관계로 볼 때, 정상부에 주거지가 먼저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덤이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묘역으로 바뀌었다.

동기시대 무덤의 조사 현황을 감안하면(李秀鴻 2007; 黃昌漢 2010), 검단리취락에 대규모 분묘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가시적인 무덤 축조에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분묘가 조성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영남지역 최대 규모의 발굴유적 가운데 하나인 진주 대평리유적은 취락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전체적으로 검토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는데(고민정 2010),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분묘공간이 주거역과 농업생산지를 구분하는 구간에 축조된 점에서 경계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경의례와도 관련된다고 하며, 환호의 내부에 중심묘역을 조성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다(도면 17). 그런데 묘역을 환호의 안쪽에 두었다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환호취락에서 이러한 예가 보고된 바도 없거니와 일부에서 확인되는 중복관계나 공간분포상의 정황을 보면, 분묘는 환호의 밖에 배치되거나 또는 환호와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대규모 묘역이 주거역과 함께 확인된 유적은 사천 이금동취락과 김해 율하리취락이 대표적이다. 이금동취락은 대형 의례공간을 사이에 두고 분묘공간과 주거공간이 배치된 구조로서, 취락은 중기가 중심이지만 전기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도면 18). 보고자는 주거역에서 보이는 3개의 군집 양상과 묘역의 3렬구조가 서로 관련될 가능성을 타진하였는데¹⁰⁾(崔鍾圭 2003), 필자 역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금동취락이 존속한 전기후반의 유구 몇 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기로 편년된다(도면 19·20). 취락의 구조는 이금동과 다른 양상을 띠는데, 최대규모의 묘역이 조성된 A지구에 75기의 무덤이 밀집되어 있으며, D지구는 주거지만 17기, B지구는 주거지13+무덤 18기, C지구는 주거지8기+무덤6기, E지구는 주거지10기+무덤6기로 구성되어 있다. B·C·E지구 각각의 구역은 대략 주거와 무덤의 대응 비율이 어울리는 듯 보이는 것에 비해서 A지구와 관계될 만한 주거공간은 분명하지 않다. D지구를 포함하여 미발굴 지역에 몇 개소의 주거역이 분포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각각의 주거역들은 하나의 단위 취락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A지구의 분묘공간은 다시 4-5개의 소군으로 나뉘는데, 이것이 단위 취락들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A1지구 남단에 있는 A1-1호 지상건물지는 보고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분묘공간에 인접한 곳에 배치된 의례공간으로 추정되는데, 전술한 사천 이금동이나 부여 송국리취락의 예와 유사하다.

10) 청동기시대 묘역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형태는 列狀構造와 環狀구조이다.

분묘역과 주거역의 관계는 영남지역의 중심취락인 이금동이나 울하리의 경우 공동체 성원의 다수가 무덤에 매장된 반면에, 관창리나 송국리와 같은 호서지역의 중심취락에서는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 제한적인 공간에 묘역을 조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술할 호남지역의 대규모 분묘공간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역별로 또는 취락별로 사회조직을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게 작용된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④ 호남지역

한반도에서 지식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호남지역은 그 동안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묘공간과 주거공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양호한 취락유적이 거의 없었고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장흥 갈두유적과 신평유적의 조사성과를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갈두취락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부에 가장 규모가 큰 갈두西취락이 있고 그 양쪽으로 갈두東취락과 송정취락이 분포한다(도면 21). 갈두서취락은 지식묘 61기, 주거지 34동이 발굴되었지만, 미발굴지역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묘역과 주거역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개별 주거지 가운데 면적 48.9㎡(갈두가지구 13호)와 33.2㎡(갈두지석묘가군 9호)에 달하는 대형 주거지는 이 갈두서취락에만 분포한다. 이 갈두취락은 원형점토대토기 또는 삼각무경축이 출토되는 주거지와 지식묘가 존재하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흥 신평취락은 갈두취락의 앞에서 탐진강과 만나는 유치천을 따라 동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여기에서는 주거지 51동과 지식묘 34기가 발굴되었으며, 주거역의 북서쪽에 또 다른 지식묘군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분묘역과 주거역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도면 22).

한편, 지식묘 최대 밀집지역이면서 청동기 출토 수량 역시 최다인 여수반도지역은 분묘공간의 양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주거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묘역 주변에서 기껏해야 주거지 몇 동만 확인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수 적량동 상적유적이거나 월내동 상촌유적이 대표적이다(도면 23·24). 이 거대 규모의 분묘역과 관련된 주거역이 인근에 존재할지 아니면, 비교적 떨어진 곳에서 발굴조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앞서 검토된 장흥 갈두유적이거나 신평유적의 취락구조에 비추본다면 분묘역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주거역의 흔적이 확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수반도의 분묘유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식묘 축조집단의 단위와 집단의 영역을 추적한 연구가 주목되는데(이동희 2007), 주거역과 분묘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장흥지역의 발굴성과나 경상도 남해안지역의 양상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2)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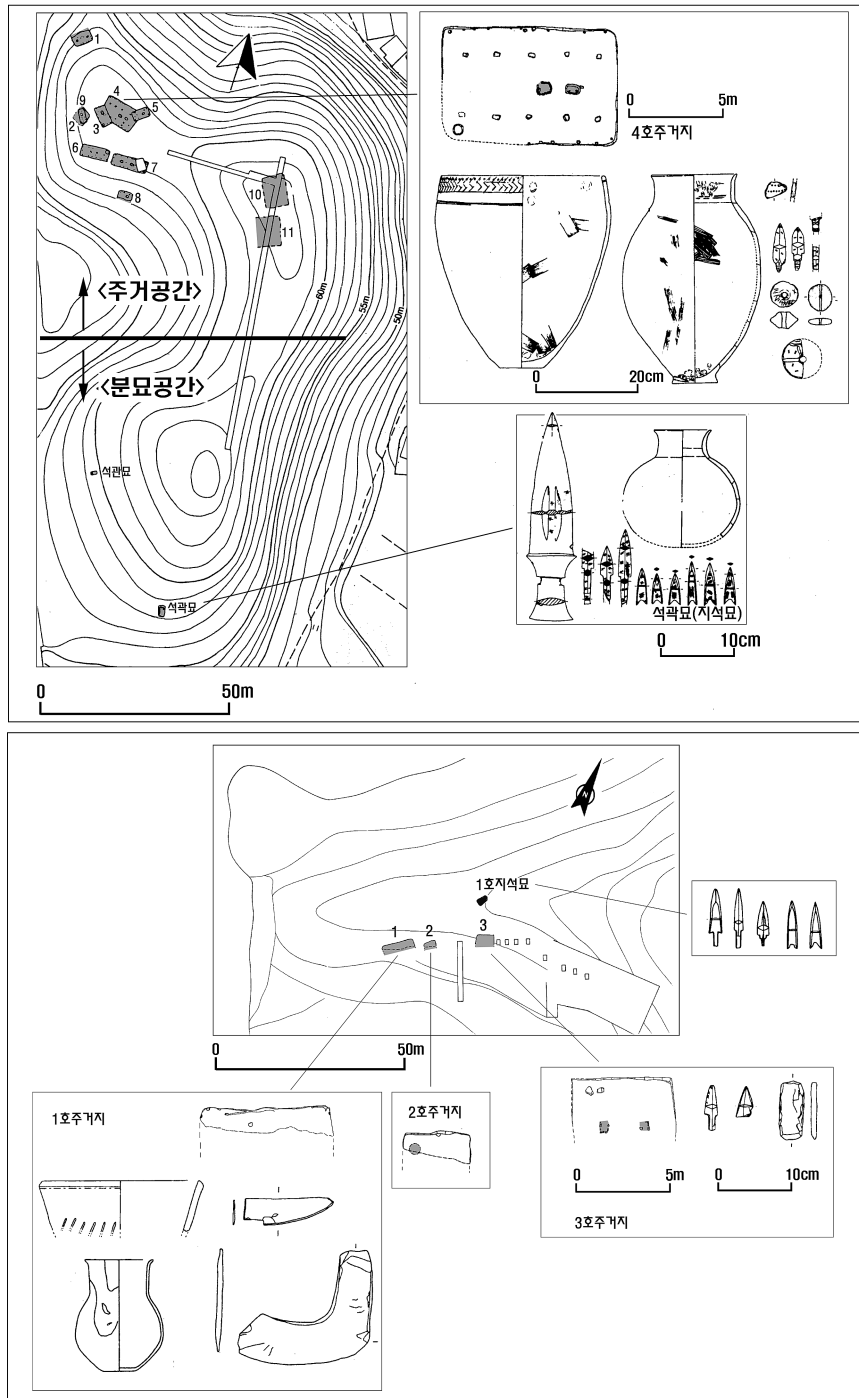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수석리식토기가 유행한 시기의 유적에서 분묘공간이 주거공간과 함께 발굴된 예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고성 송현리B지구취락은 구릉 정상부에 석관묘 1기만 상징물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주거지들은 아래쪽의 사면부에 열상으로 분포하고 있다(도면 25). 이와 달리 고성 제진리취락은 주거역이 구릉의 정상부 능선 쪽에 있고 묘역은 석관묘 3기가 사면 쪽에 20-60m 정도씩 이격되어 있다(도면 26).

안성 반제리취락은 의례와 관련된 환호와 함께 72동의 주거지와 적석목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발굴된 범위로 볼 때, 취락의 전모가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거역의 규모에 비해 분묘역의 규모가 너무 작다. 사면 하단부에 들어선 묘역은 취락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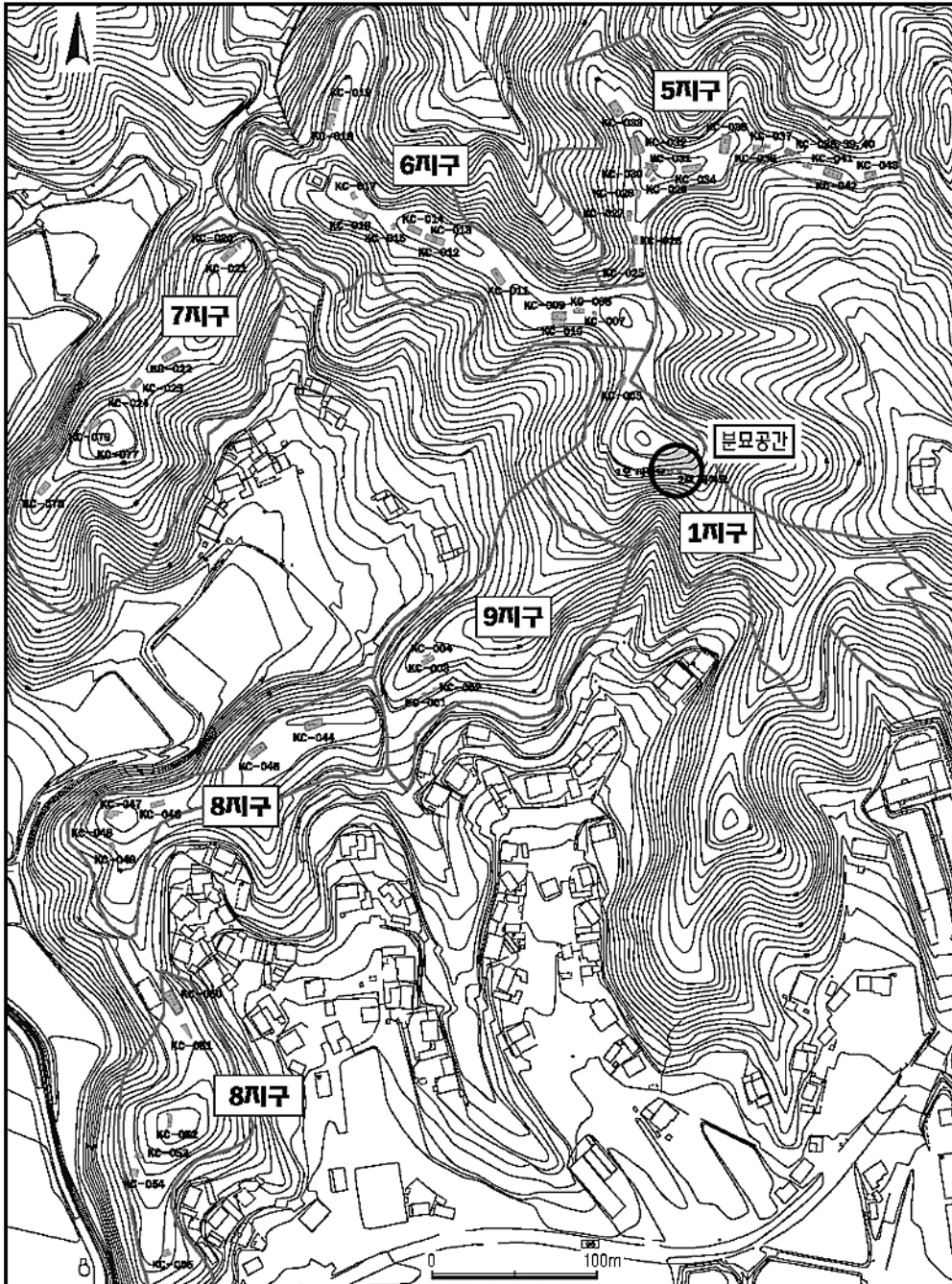
영남지역에서는 합천 영창리유적(도면 28)이나 사천 방지리유적(도면 29)과 같이 환호취락 외부의 입구 쪽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묘공간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 입구에 무덤을 축조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즉 무덤이 가지는 상징성(조상신, 외경대상, 신성지역)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외부의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尹昊弼 2007). 이는 앞 시기의 진주 대평리취락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분묘축조가 미약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전기와 마찬가지로 집단의 빈번한 이동과 관련될지, 아니면 외래계인 점토대토기집단이 재지계 지식묘집단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송국리식주거지나 지식묘 등에서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된 유물이 빈출하는 양상을 볼 때,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물질문화가 장기간 공존한 것으로 보는 주장에도(이홍중 2006; 김장성 2009) 귀를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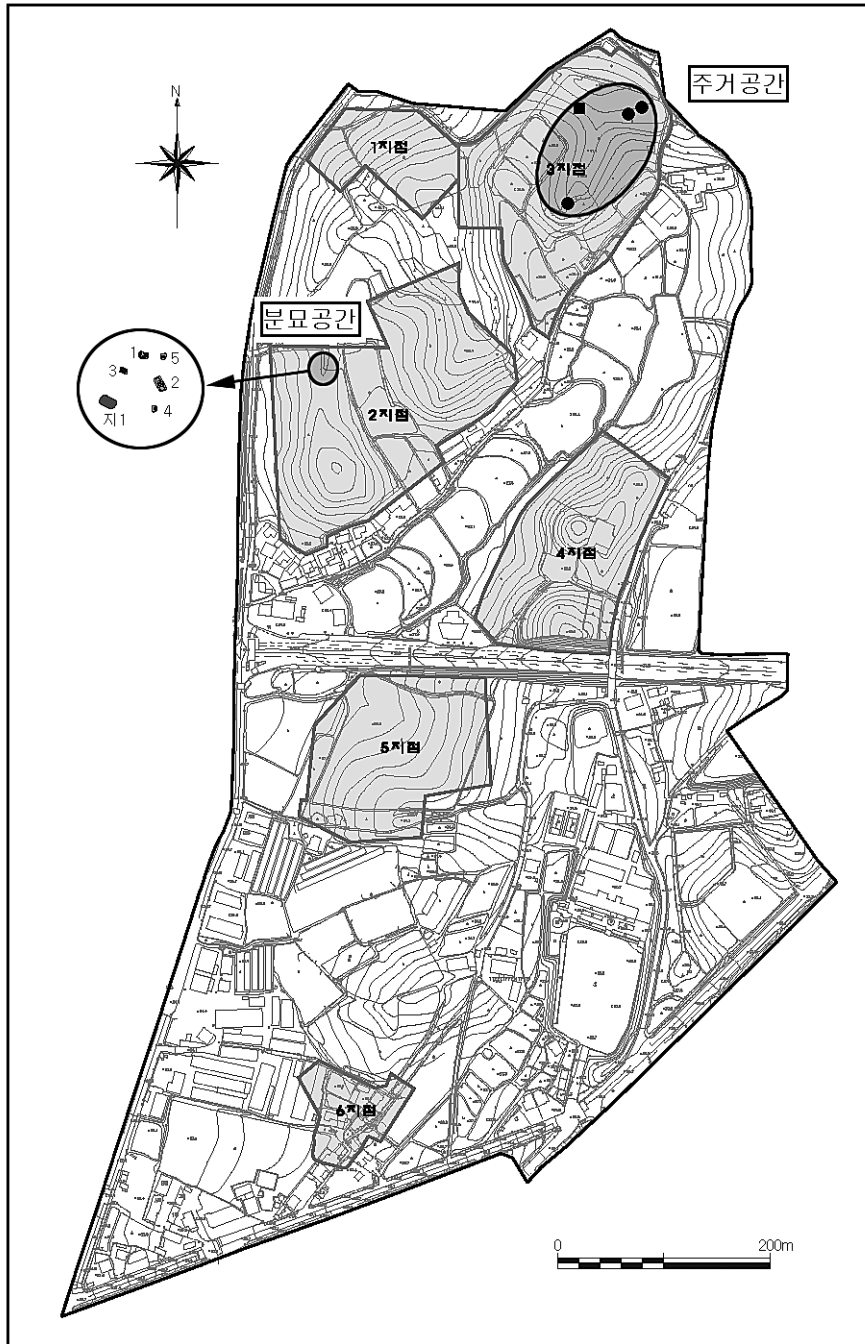
11) 실제로 김승옥(2007)은 지식묘 가운데 이단 지하 굴광을 하고 최하단에 석곽, 석관, (석개) 토광형의 매장주체부를 갖거나 매장주체부 상면에 다중의 개석을 설치한 사천 이금동을 비롯해서 창원 덕천리, 여수 적량동, 승주 우산리, 보성 덕치리 등의 일부 지식묘를 후기로 편년하여 지식묘 사회를 검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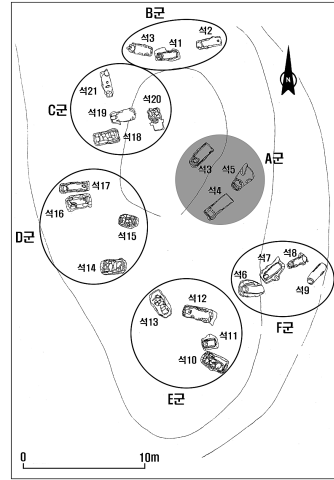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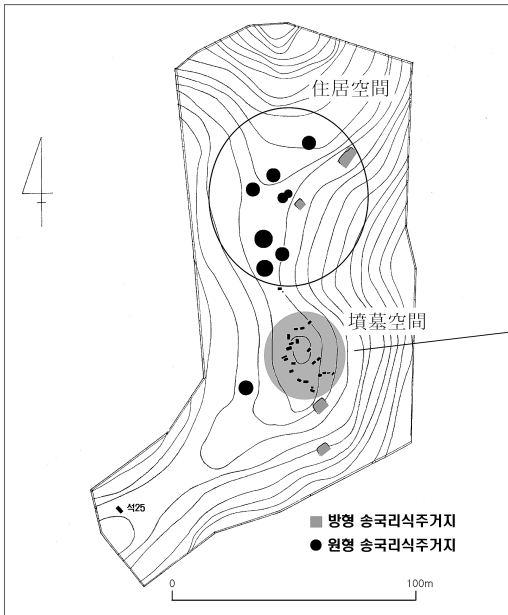
〈도면 5〉 전기(호서) 대전 신대동취락과 제천 능강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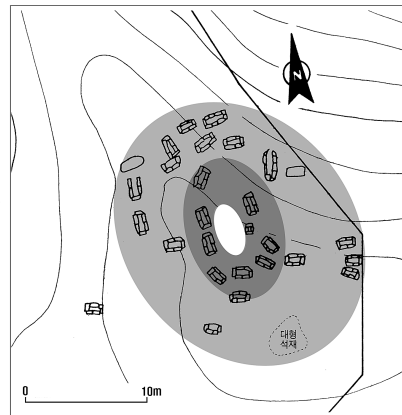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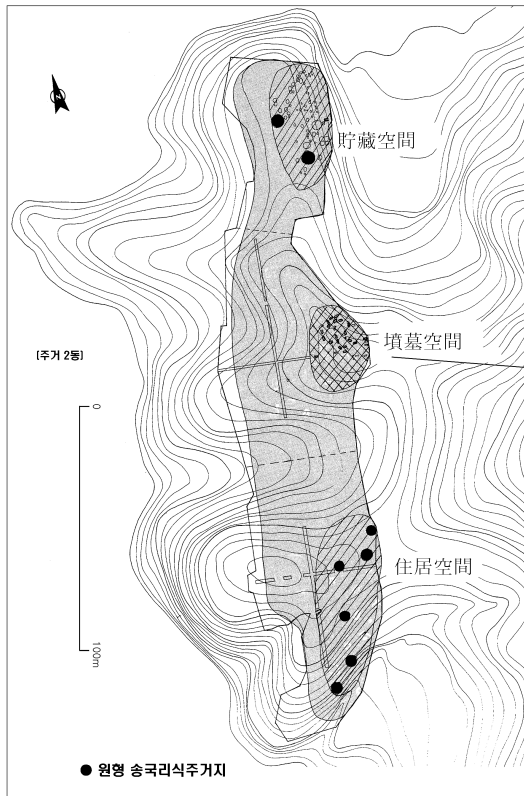
〈도면 6〉 전기(호서) 연기 송원리취락의 분묘공간



〈도면 7〉 중기(중부) 안성 만정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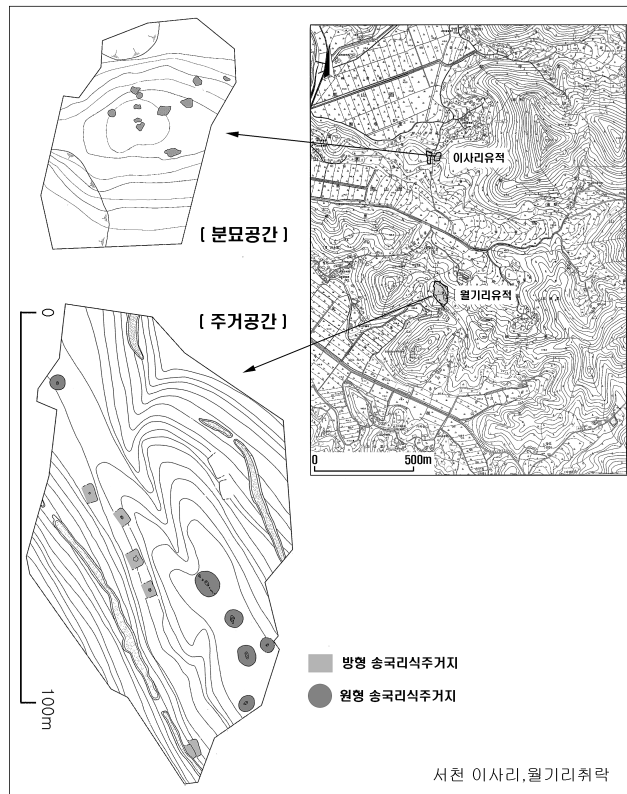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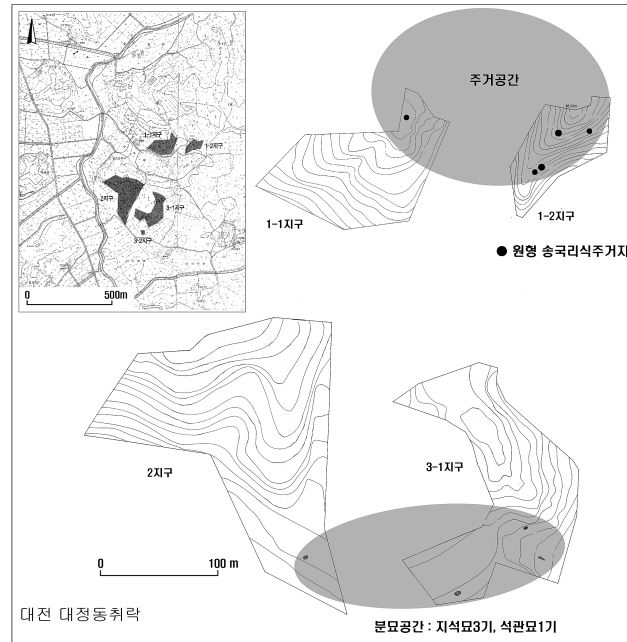


舒川 烏石里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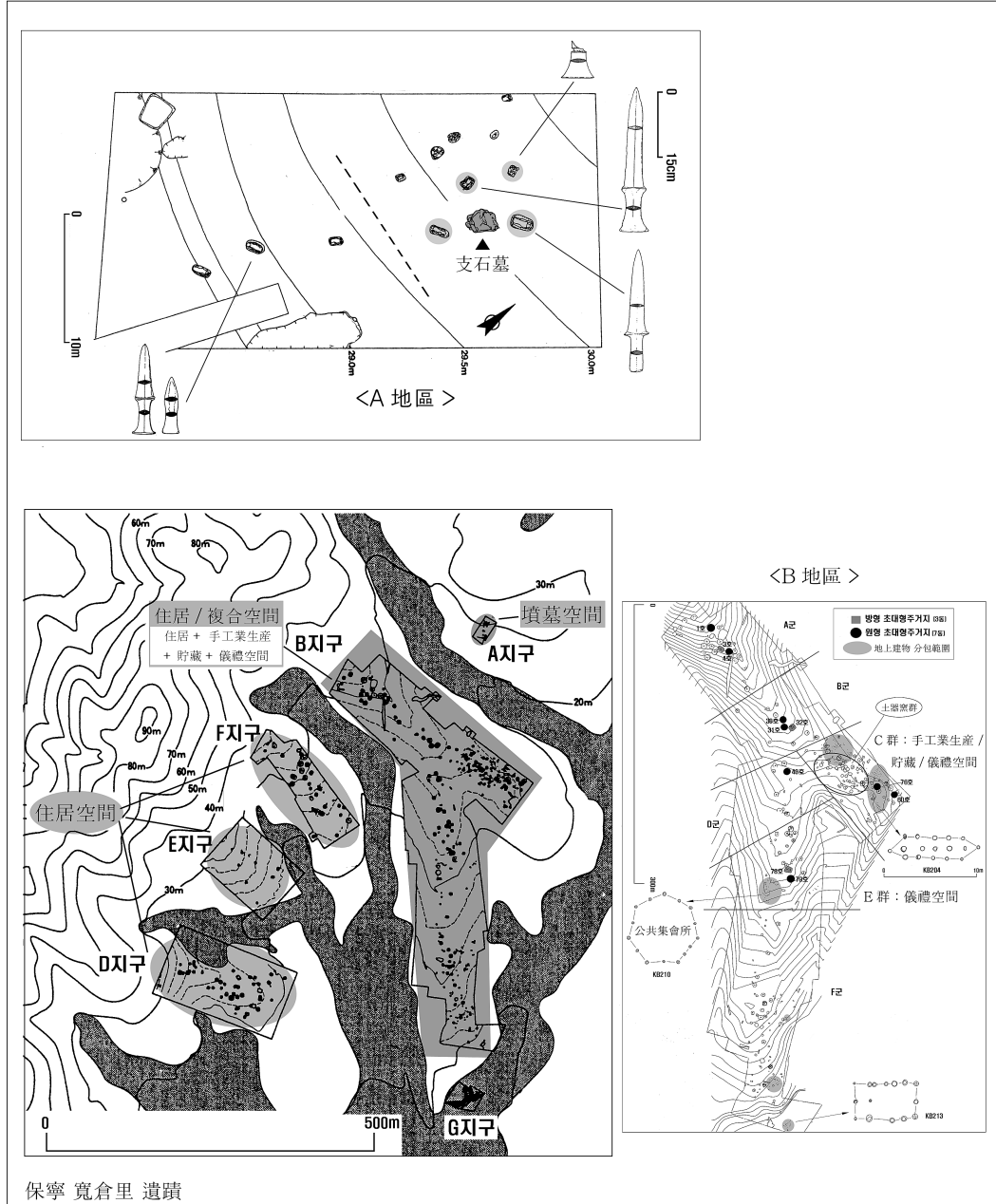


公州 山儀里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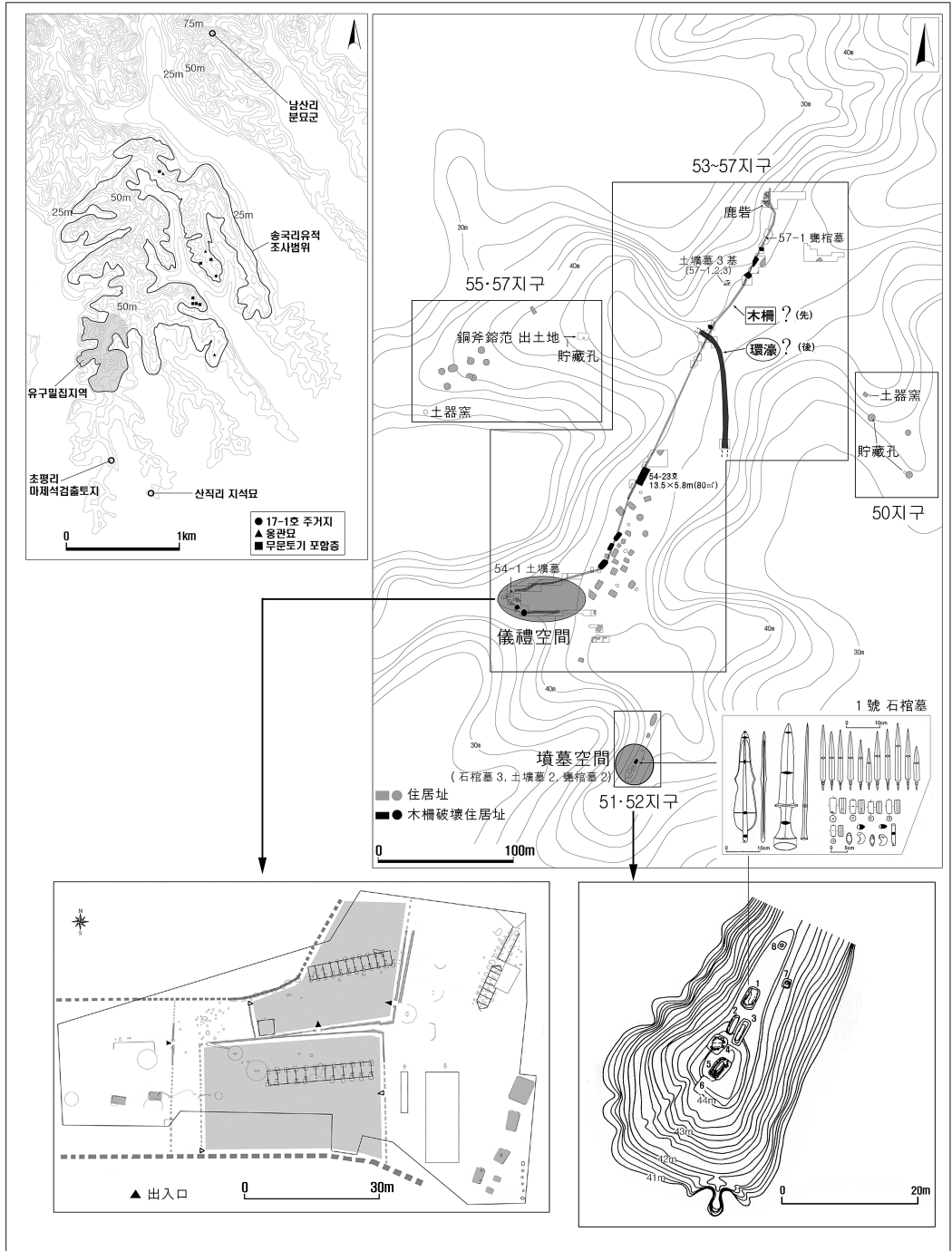
<도면 8> 중기(호서) 공주 산의리취락과 서천 오석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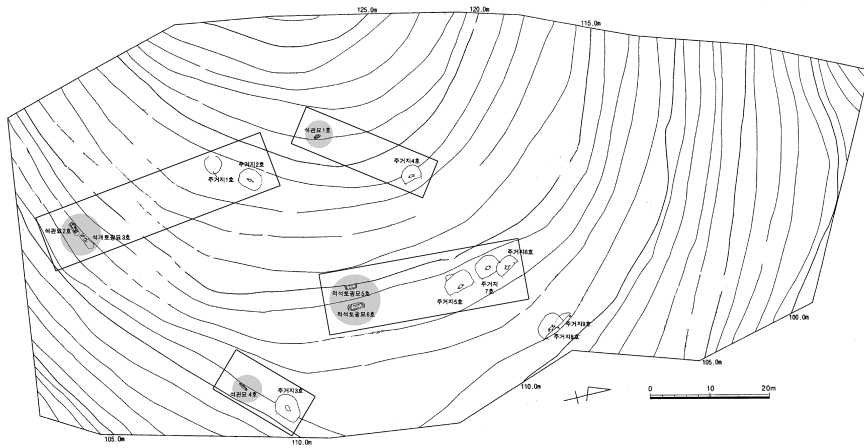
〈도면 9〉 중기(호서) 대전 대정동취락과 서천 이사리·월기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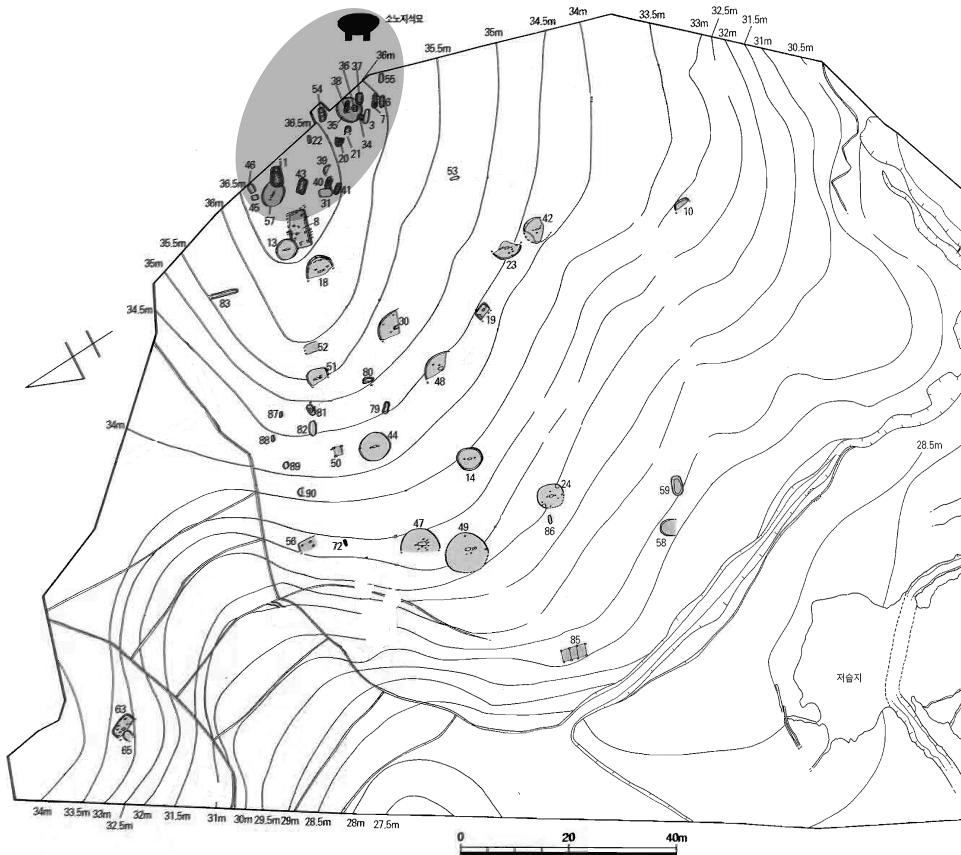
<도면 10> 중기(호서) 보령 관창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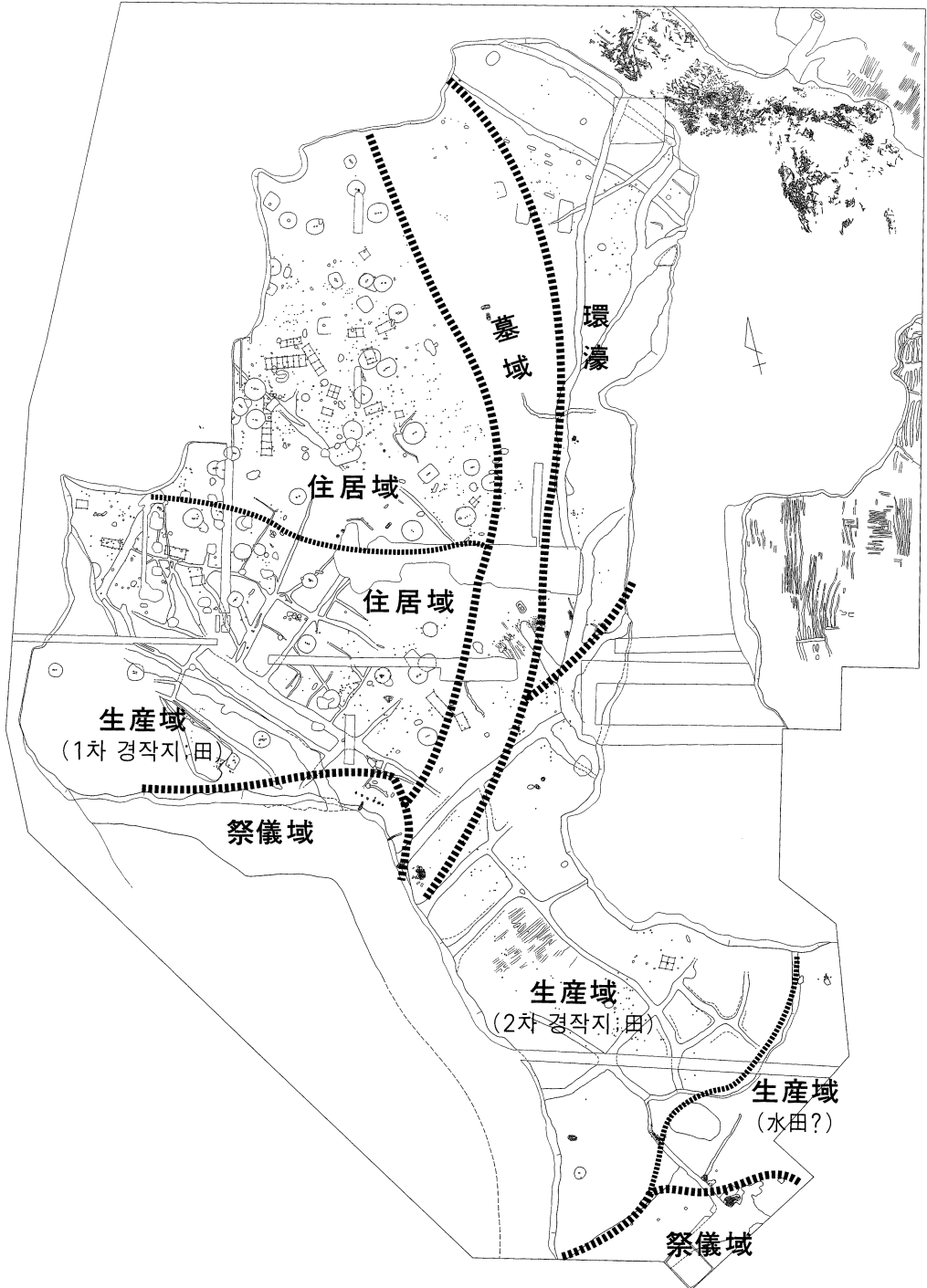
<도면 11> 중기(호서) 부여 송국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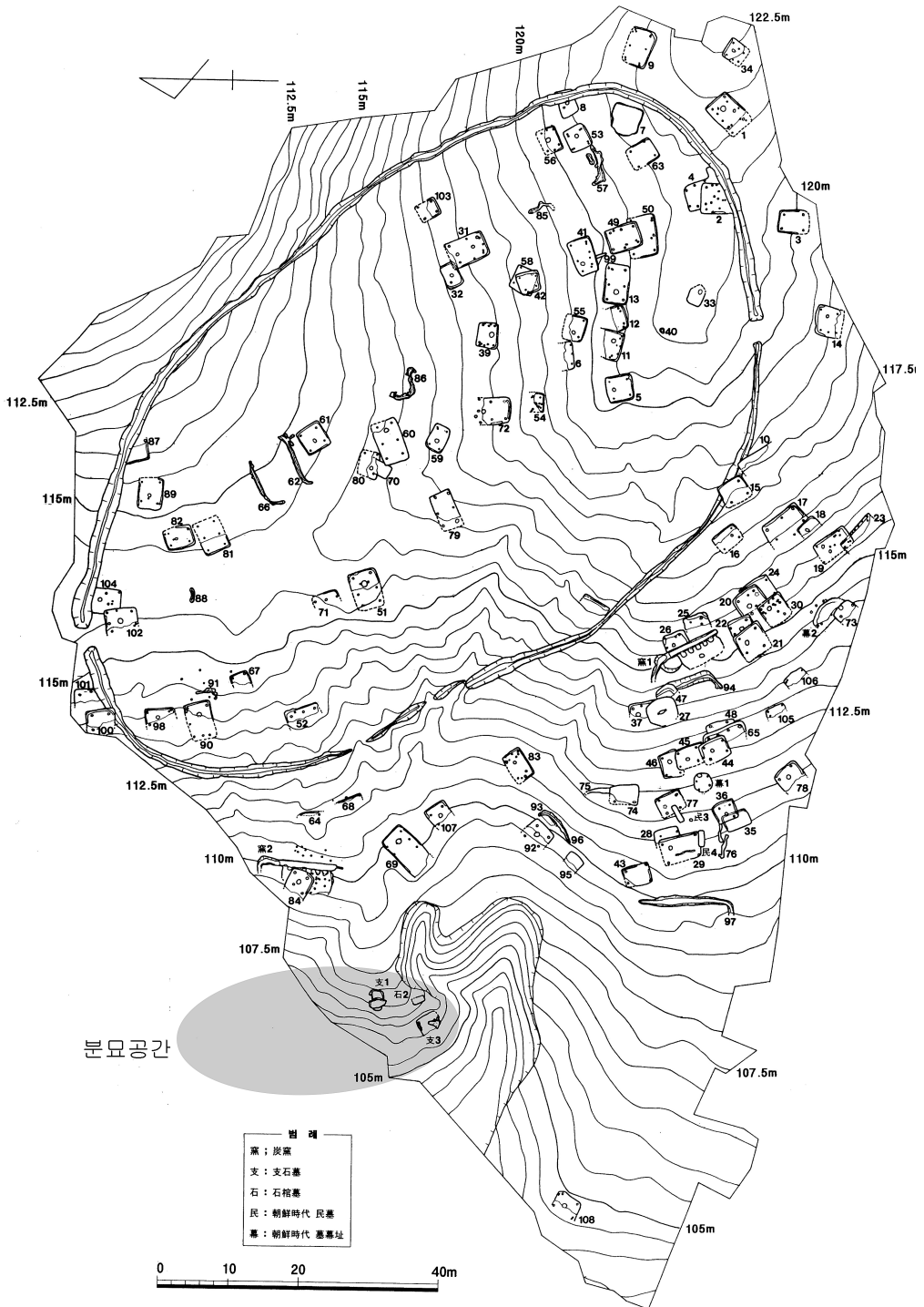
<도면 12> 중기(영남) 진주 안간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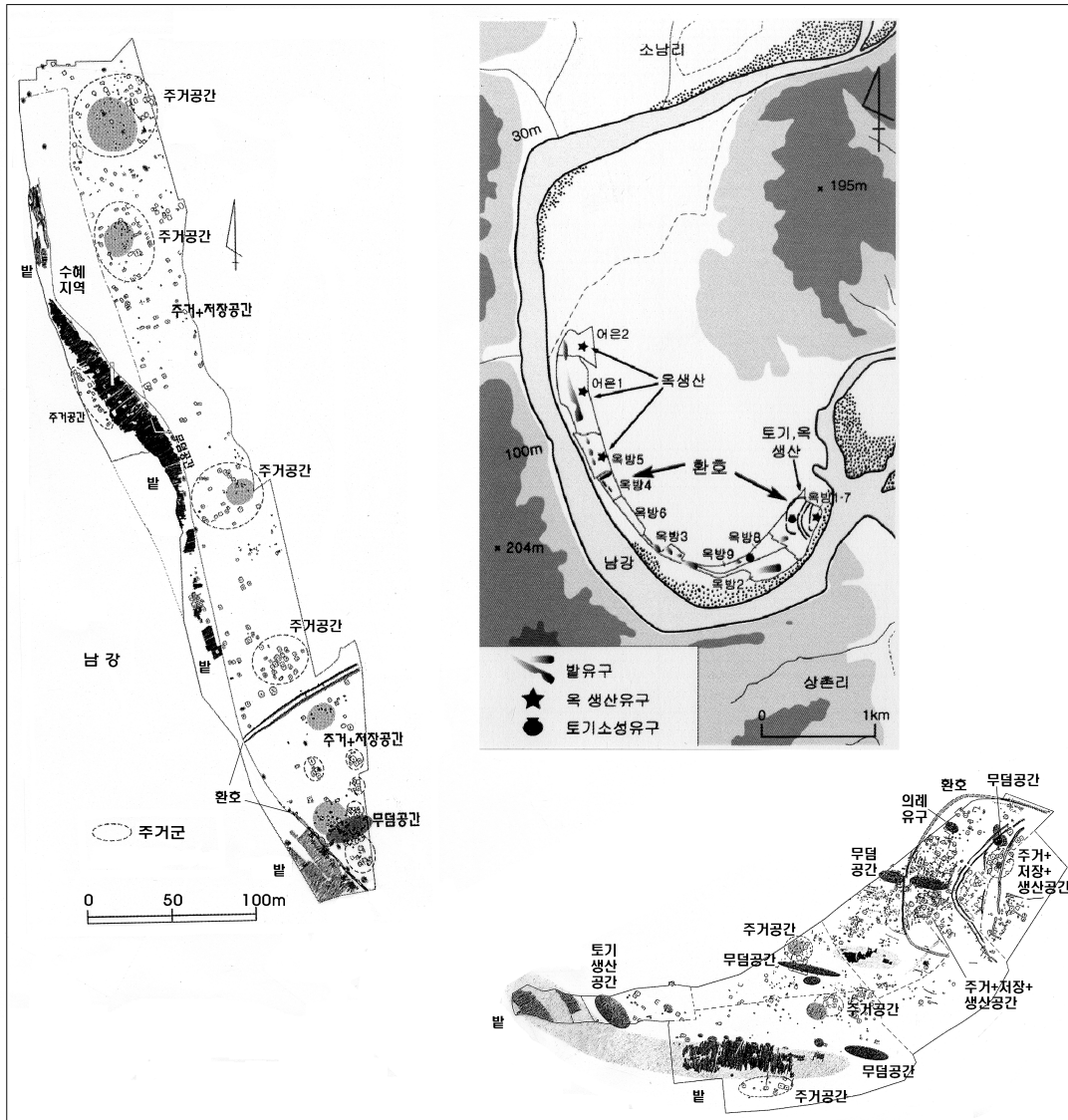
<도면 13> 중기(영남) 양산 소토리취락의 분묘공간



〈도면 14〉 중기(영남) 대구 동천동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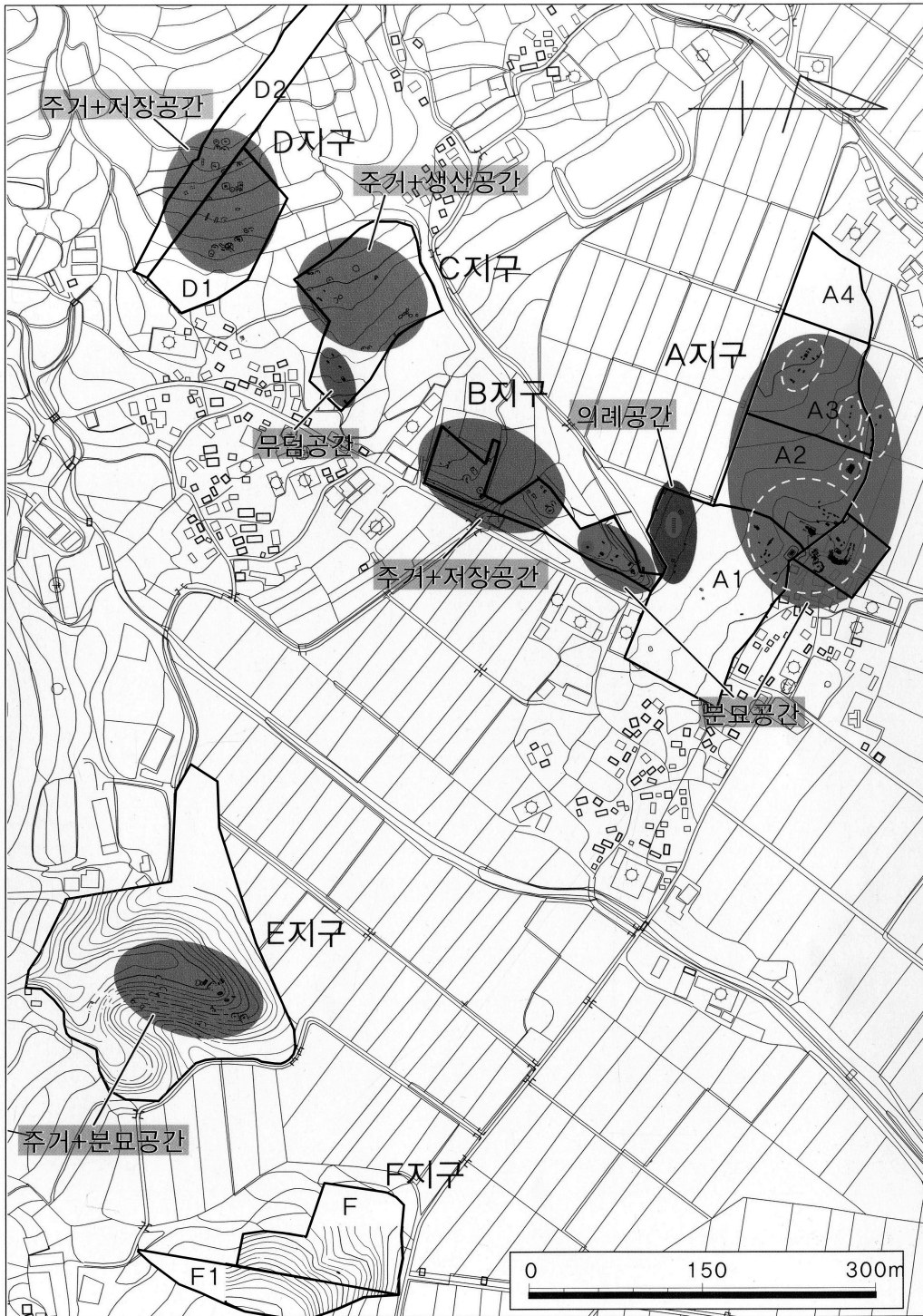
<도면 16> 전기말-중기(영남) 울산 검단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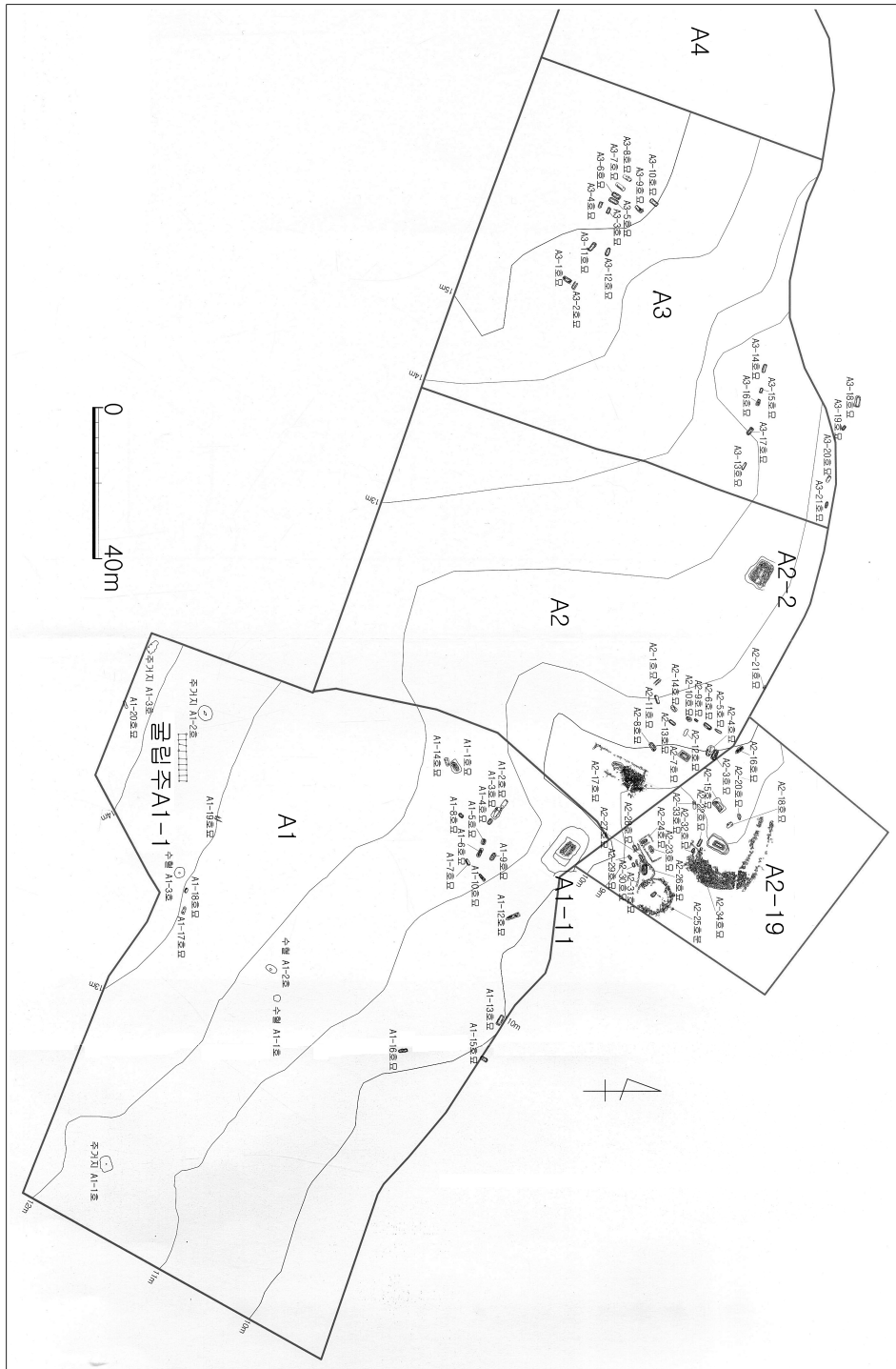
〈도면 17〉 중기(영남) 진주 대평리취락의 분묘공간(고민정 2010 수정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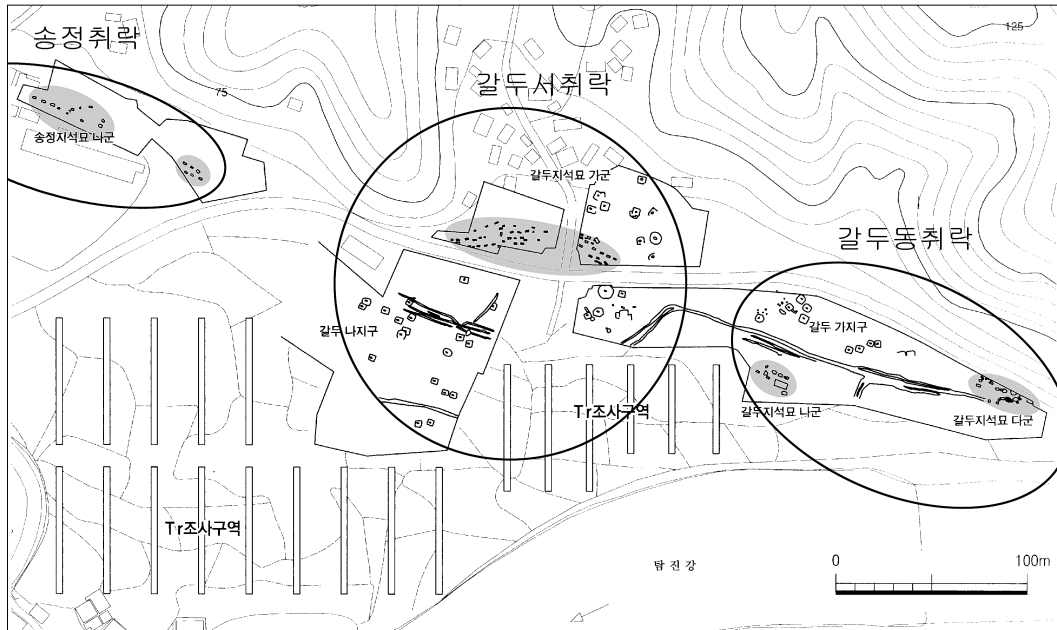
<도면 18> 중기(영남) 사천 이금동취락의 분묘공간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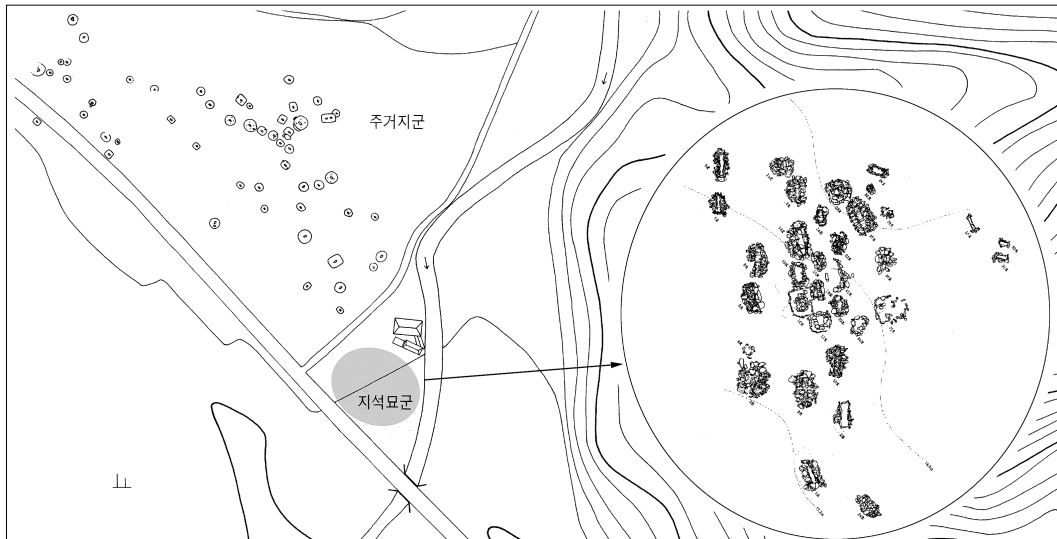
〈도면 19〉 중기(영남) 김해 울하리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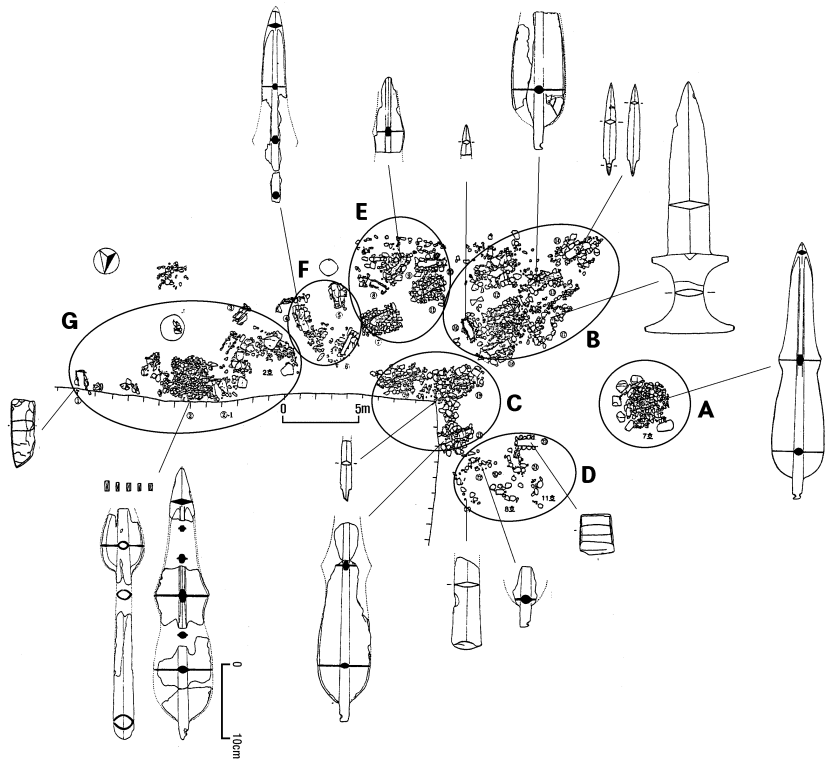
<도면 20> 김해 율하리취락의 A지구 분묘공간



〈도면 21〉 중기(호남) 장흥 갈두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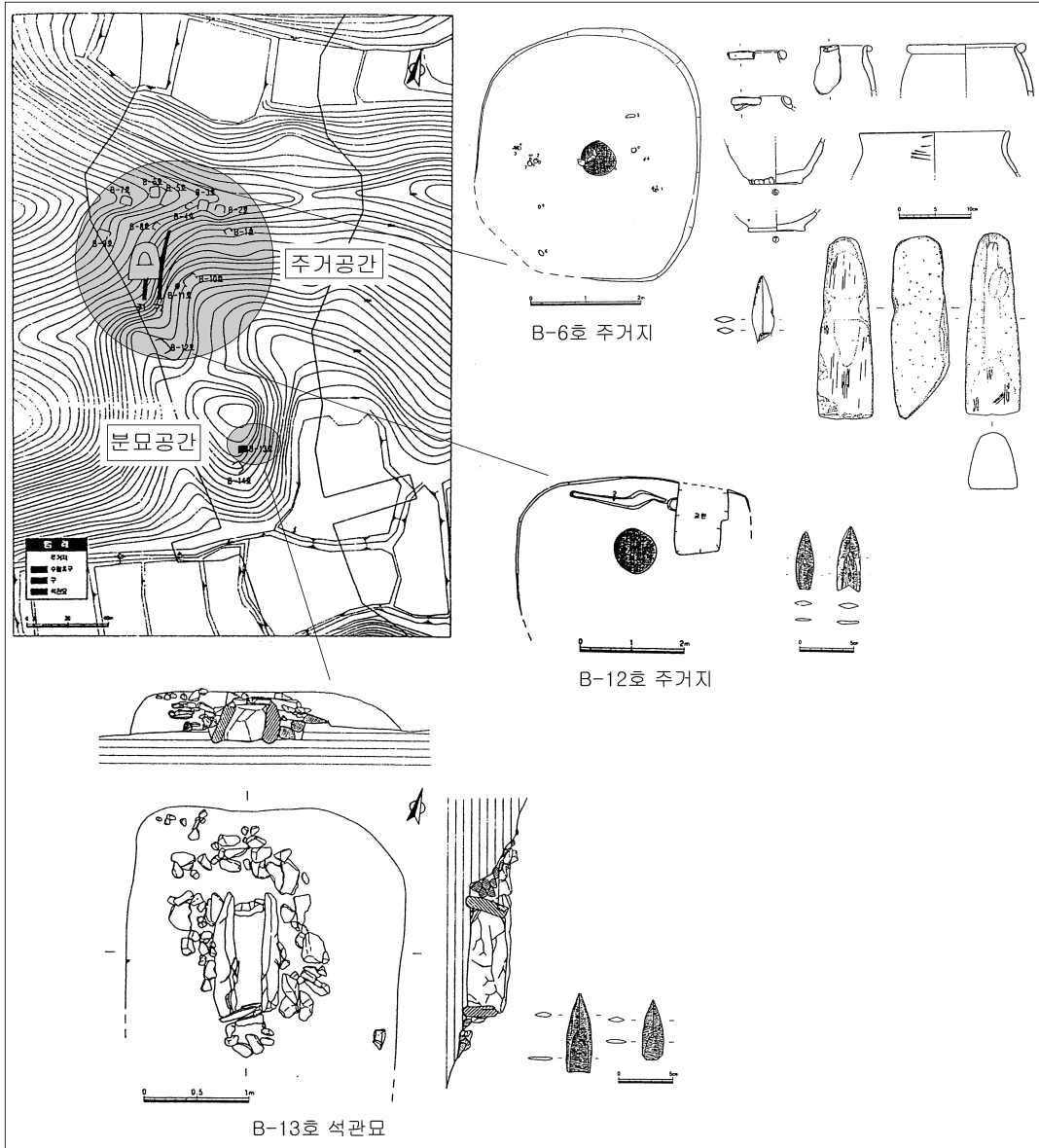
〈도면 22〉 중기(호남) 장흥 신평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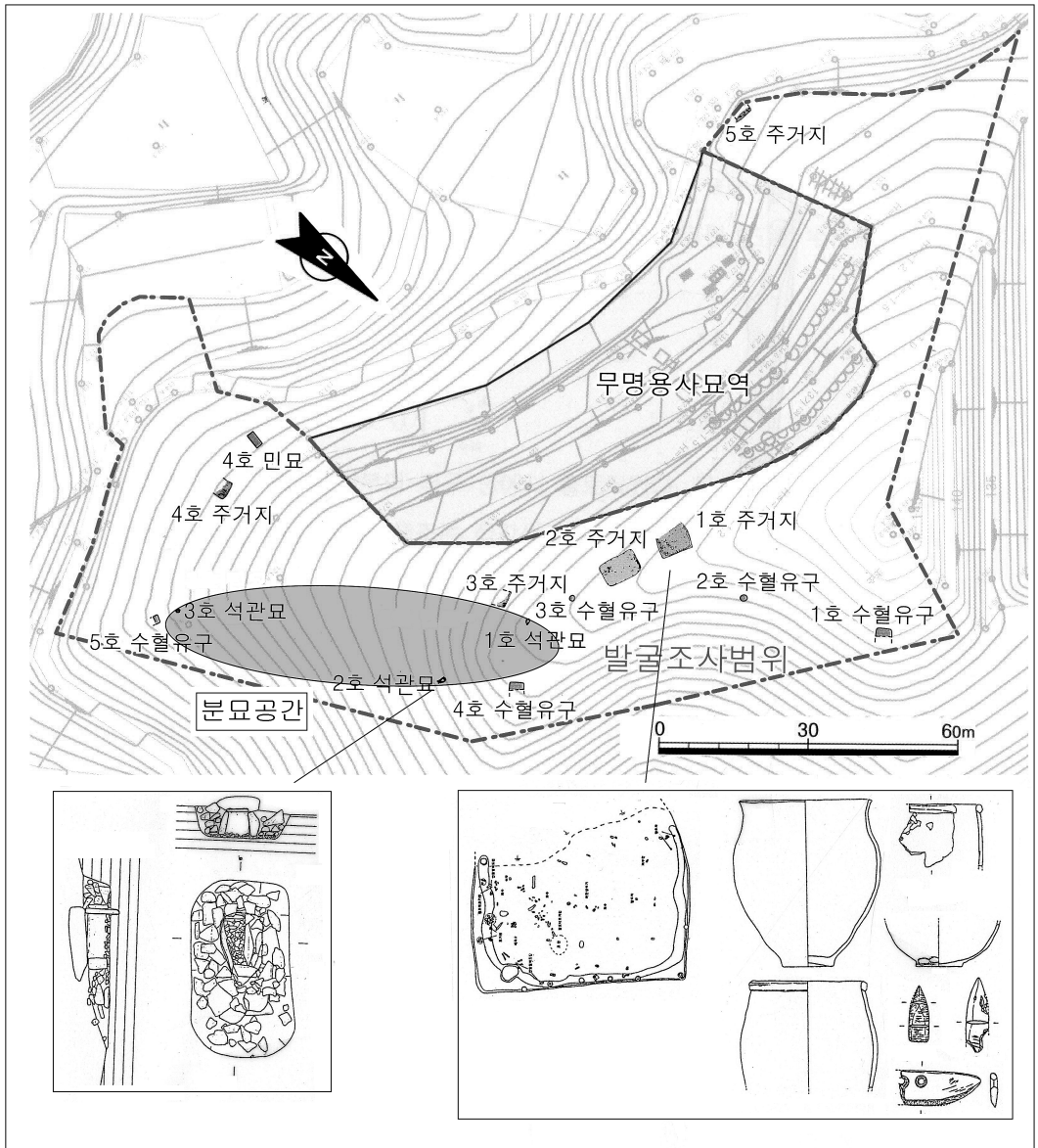
〈도면 23〉 중기(호남) 여수 적량동 상적유적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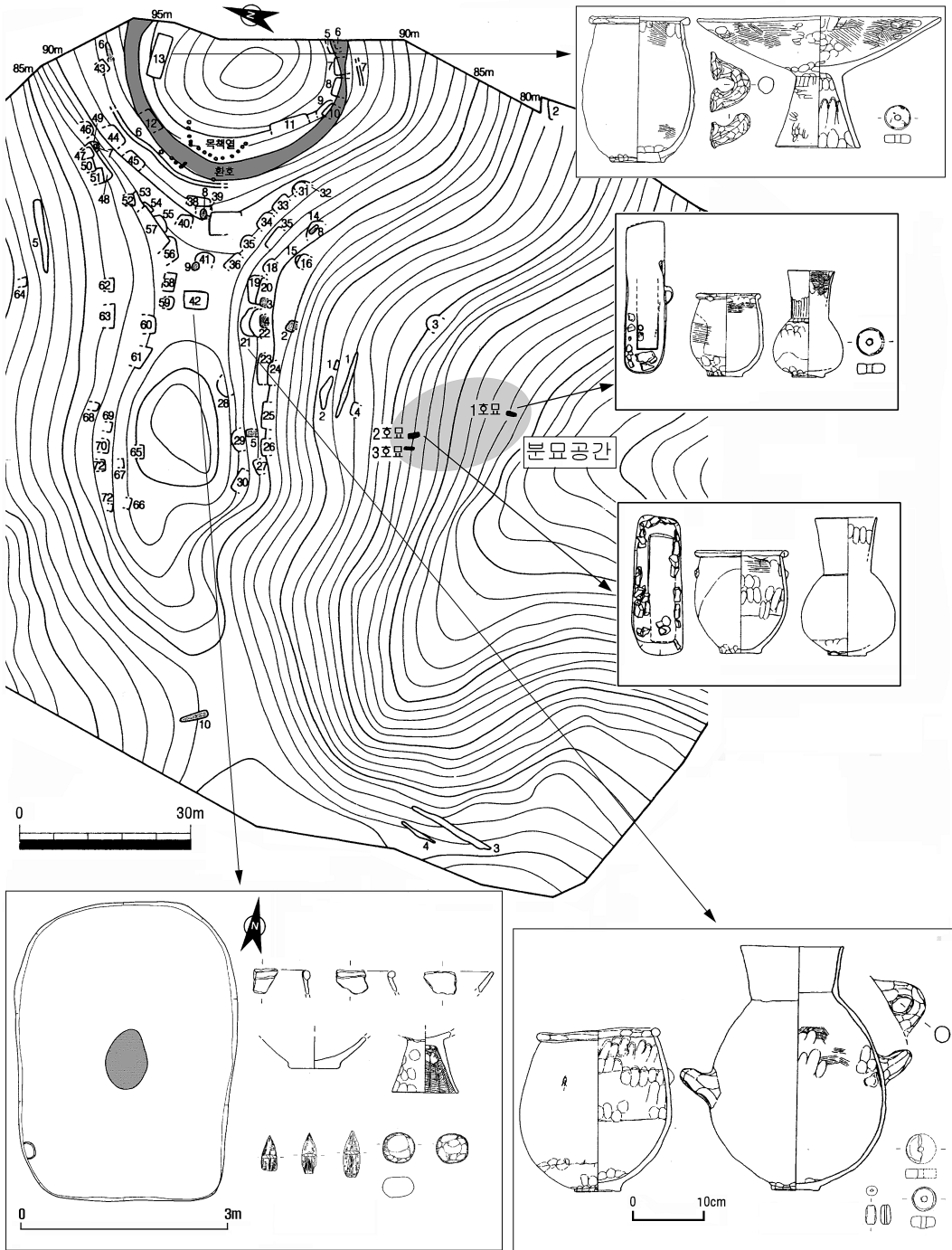
〈중기 24〉 중기(호남) 여수 월내동 상촌유적(지석묘군Ⅲ)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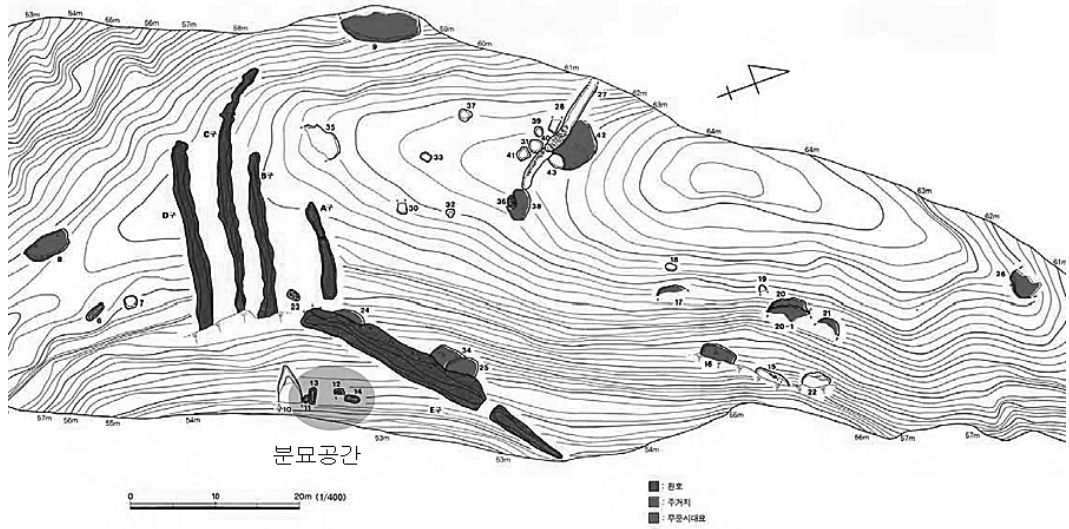
〈도면 25〉 후기(중부) 고성 송현리B지구 취락의 분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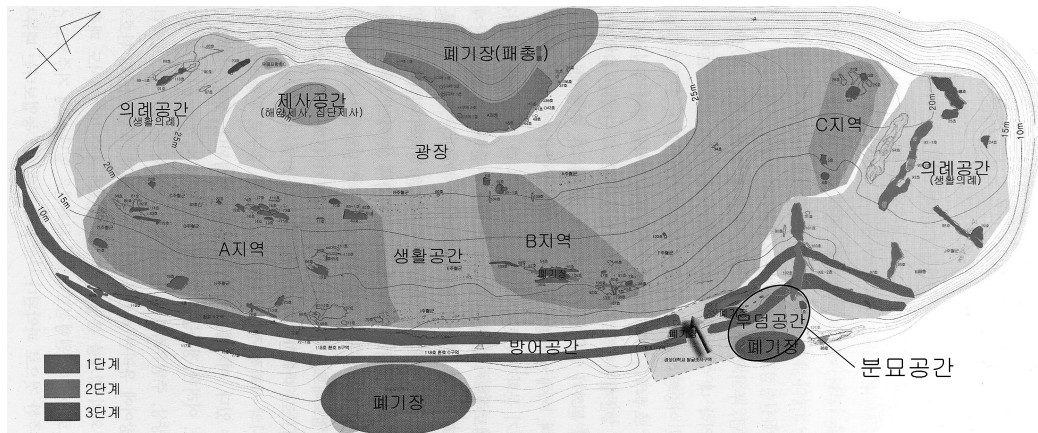
〈도면 26〉 후기(중부) 고성 제진리취락의 분묘공간



〈도면 27〉 후기(중부) 안성 반제리취락의 분묘공간



<도면 28> 후기(영남) 합천 영창리취락의 분묘공간



<도면 29> 후기(영남) 사천 방지리(1단계)취락의 분묘공간

IV. 맺음말

본고는 청동기시대의 분묘공간 조성에 대해 정치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양상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약점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주거역과 묘역이 함께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다룬 까닭에 무덤이 대규모로 분포하는 분묘공간에 대해서는 복수의 여러 취락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共時性의 문제를 비롯해서 주거역과 분묘역의 유기적인 관계 또는 취락 경관에 대한 해석 등에서는 선학제현의 비판과 질정을 통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큰 틀에서 분묘공간의 형성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놓고자 하며, 또한 현재 청동기시대 분묘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무덤 그 자체 또는 부장품에 대한 형식분류와 편년, 지역성, 기능이나 성격 등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에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앞으로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고민정,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 54
- 金權中, 2008, 「青銅器時代 周溝墓의 發生과 變遷」, 『韓國青銅器學報』 3
- 김승옥,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
- 김장석, 2009, 「호서와 서부호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편년에 대하여」, 『湖南考古學報』 33
-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 安在皓, 2009, 「青銅器時代 泗川 梨琴洞聚落의 變遷」, 『嶺南考古學』 51
- 尹昊弼, 2007, 「Ⅴ. 고찰-2. 遺構」, 『泗川 芳芝里遺蹟Ⅲ』,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이동희, 2007, 「支石墓 築造集團의 單位와 集團의 領域-麗水半島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26
- 李秀鴻, 2007,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 『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 제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엄,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李亨源, 2010a, 「青銅器時代 住居와 聚落 研究의 爭點 檢討」, 『考古學誌』 16
- 이형원, 2010b,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고학』 9-2
- 李亨源,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 24
- 이홍중,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 60
- 崔鍾圭, 2003, 「梨琴洞 集落의 構造」, 『泗川 梨琴洞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 崔鍾圭, 2004, 「梨琴洞からみた松菊里文化の一断面」, 『福岡大學考古學論集』,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 崔鍾圭, 2005, 「所土里遺蹟에서 본 松菊里文化의 一断面」,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 集落』, 慶南考古學研究所
- 黃昌漢,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墓制의 特徵」,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 開院 10週年 紀念論文集, 蔚山文化財研究院

〈보고서는 생략함〉